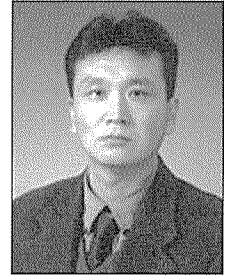


정보문해 교육과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고영만*

사회라는 것은 각 구성원들이 사회적 재생산 과정에서 그 자신의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여러 상이한 행동들이 집합된 그물망이며, 산업사회에서 각자의 위치를 확정시켜 주는 도구는 직업이었다. 하지만 산업사회에서 구축되었던 직업의 정형적 형식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사회의 진행과정에서 점점 해체되고 있다. 직업의 구분뿐 아니라 직업의 공간적, 시간적 한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분리되는 계층화가 형성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새로운 정보기술이 사회적, 개인적 생활영역에 침투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도전에 우리 사회가 적절하게 대처하고 또 이 도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용하고자 한다면 그 관건이 되는 것은 바로 거시적인 정보문해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이 정보문해를 갖추게 됨으로써 지식의 연결 고리를 놓치지 않게 되고 또 사회의 그물망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문해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 교육기관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이자 교육적 위임사항이 되고 있다.


정보문해란 정보기술과 변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정보와 정보기술의 복잡성을 극복함으로써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정보문해 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학습자로 하여금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고, 정보기술 활용능력과 조사 능력을 확대시켜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정보문해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반 교과목이나 전문지식과는 다른 특별한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지식은 일상적 의사소통의 기초이자 사회적 행위를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개인들의 판단 기준을 개발하도록 도와주고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일생동안 항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1998년 '지식기반사회의 잠재성 및 교육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독일연방교육연구부의 텔파이보고서는 이러한 지식을 '내용을 강조하는 전문지식과는 다른 종류의 지식 개념이며 전문지식에 이르게 하는 지식'으로 규정하면서 2000년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높은 수준의 일반지식'으로 지칭한 바 있다.

학교도서관에서의 정보문해에 관한 구상이 시작된 것은 1960년 미국의 헨니(F. Henne) 등이 발표한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1980년대 후반 이후 구성주의 학습이론과 비판적 사고를 토대로 하는 자원기반 학습, 탐구 학습 등과 관련을 맺으면서 많은 진화를 하였다. 그리고 학교도서관과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다양한 모형과 표준들이 개발되었다. 대학에서의 정보문해 역사는 19세기에 시작된 초기의 도서관 교육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육과정에 도서관 이용교육을 통합시키는 초창기의 작업에서 출발하여 오늘날에는 미국, 영국,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국가적 차원의 고등교육 정보문해 표준을 개발하여 대학에 권고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국내의 경우 학교에서의 정보문해 교육은 대체로 학교도서관 활용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ymko0329@hanmail.net

며, 실질적인 정보문해 교수-학습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와 노력들이 열의와 책임감을 가진 사서교사들을 중심으로 속도는 느리지만 실무적, 학술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내의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문해 교육은 대체로 대학도서관 이용자 교육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기초 교양 과정의 정규 과목으로 '정보문해' 강좌를 개설한 곳이 생겨났으며, 다른 대학으로의 움직임도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국내 대학생들의 정보문해 학습은 여전히 개인적 책임에 머물고 있으며, 교수와 도서관 사서들은 대학생들이 연구 질문의 구성에서 최종결과물의 작성에 이르는 탐구 과정 및 정보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우리 교육시스템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공되는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습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습득한 정보를 어떻게 평가해서 자신의 작업에 적용시킬 것인가를 학습하지 못한 채 대학에 진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정보 작업 없이는 정보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며, 정보는 노력해서 획득해야만 한다. 노력해서 정보를 획득한다는 의미는 해결해야 할 문제와 현실적 상황에 맞추어 획득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개인이 스스로 지식적 토대를 갖추고 그 자신의 지식적 토대 위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식의 양과 질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며 학습 목표로서 적절하지도 않다. 개방성을 지향하고 있는 정보시스템들을 고려할 경우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원에 스스로 접근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현실적 문제 해결 상황에 있어서 지식적 토대를 갖추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시스템도 지식적 토대를 갖추기 위한 전제조건을 형성시키는 능력 즉 정보문해를 갖추는 것을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삼아야 하며, 교육기관에 위임되고 있는 이러한 도전을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그리고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교육시스템도 지식적 토대를 갖추기 위한 전제조건을 형성시키는 능력 즉 정보문해를 갖추는 것을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삼아야 하며, 교육기관에 위임되고 있는 이러한 도전을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그리고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